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사장(왼쪽에서 5번째)이 지난 30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2025 아프리카지역 무역투자확대전략회의'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코트라

“아프리카에 전략시장 육성” 코트라, ‘원팀 코리아’ 가동

아프리카 전역에 수출 거점 확대
전략·의료·조선 등 전략 품목 지원
KSP·EDCF 활용 수출 연계 강화
AfCFTA 중심 통상 정보 본격 제공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아프리카를 단순한 잠재시장이 아닌 한국 수출의 핵심 전략시장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재편 속에서 새로운 수출 돌파구로 아프리카 대륙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지난 30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2025 아프리카지역 무역투자확대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속에서 아프리카는 기회의 땅”이라며 “이제는 아프리카를 잠재시장이 아닌, 대한민국 수출의 돌파구이자 주요 전략시장으로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대아프리카(사하라 이남)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1.4%에 불과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르완다(498%), 에티오피아(84%), 앙골라

(49%), 세네갈(46%), 탄자니아(32%) 등이 대표적인 유망 신흥시장으로 부상했다.

아프리카 인구는 2025년 현재 12.5억 명에서 2050년 25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계 최대 인구 증가 지역이다. 특히 25세 미만 인구가 전체의 59%를 차지하는 젊은 인구 구조를 바탕으로 소비재, 식품,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폭발적 수요 성장이 예상된다.

코트라는 이러한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원 팀 코리아 수출 플랫폼’을 구축해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전력기자재, 조선, 의료바이오, 원전기자재 등 주요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발주처 수요 대응부터 상담회, 컨설팅, 후속관리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 중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형 개발협력-수출 연계 모델의 확산이다. 코트라는 기존의 단순한 원조 기반 ODA 접근에서 벗어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에서 시작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수출, 현지화로 이어지는 연계형

수출 모델을 구축했다.

이 모델을 통해 아프리카 각국의 정책 수립 단계부터 한국 기업 참여 기반을 확보하고, 타당성 조사와 인프라 개발, 민간 기업의 후속 진출까지 일관되게 연결할 수 있게 됐다. KSP를 활용한 남아공 그린수소 전략수립, 모잠비크 가스전 활용 타당성 분석, 케냐 교통 정책 개발 등이 대표적 성공사례다.

정보 접근성이 낮은 아프리카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코트라는 시장 정보 제공 기능도 전략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아프리카자유무역협정(AfCFTA) 본격 시행,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 A) 갱신 불확실성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2025년 한 해 동안 아프리카 관련 정보 300건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경성 사장은 “아프리카는 새로운 시장을 넘어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라며 “G20 정상회의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아프리카를 전략시장으로 전환하고, 우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진출을 본격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보육의무 외면한 ‘다스’, 10번째 명단 올라

교육부·고용부

직장보육 미이행 사업장 20곳 공표
10회 반복 적발된 기업은 ‘다스’ 뿐

일정 규모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 사업장이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20개 사업장 명단이 공개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다스(경북 경주시 소재)도 여기에 포함됐는데, 다스가 명단 공표에 포함된 건 이번까지 10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0개 사업장 명단을 지난 31일 공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20개 사업장은 ㈜다스, 대주회계법인, ㈜텐티움,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의료법인명인의료재단화홍병원, 부여군청, 주식회사 비에이치제2

공장, 시네오스헬스코리아 유한회사, 주식회사 아이티센엔텍, SK오션플랜트㈜, 여수전남병원, 여천전남병원, 와이엠씨㈜, 인천가톨릭학원 가톨릭관동대학교국제성모병원, ㈜인터로조, 자화전자㈜구미공장, 지멘스헬시니어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푸드웨어, 주식회사하나로넷, 현대스틸파이프주식회사 등이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씨가 대표로 있는 다스는 명단 공표 누적 횟수가 10회에 달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스가 밝힌 미이행 사유는 ‘보육수요 부족’이었다. 이외에 ㈜아이티센엔텍(대표 신장호)은 3회째 명단에 올랐으며, 여천전남병원(대표 정순주)과 가톨릭관동대학교국제성모병원(대표 고동현)은 각각 2회째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공표된 명단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명, 주소, 사업주 성명 등 기본 정보

와 함께 상시 근로자 수, 명단 공표 누적 횟수, 의무 불이행 사유 등도 함께 공개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2024년 실태조사 기준, 93.9%로 전년 대비 0.8% 포인트 상승했다.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43개소 중 1083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했고, 460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43개소가 의무를 이행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총 100개소였고, 이 중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제의 사유에 해당하는 80개 사업장을 제외하고 20개 사업장만 명단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명단 공표 제외 사유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배달앱 원산지 표시방법 알려드려요”

농관원·수품원, 교육 동영상 보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배달의민족과 협업해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해 보급한다고 1일 밝혔다.

농관원과 수품원은 배민과 함께 음식점 사업자들이 배달앱에서 원산지를 올바르게 표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했다. 이는 2024년 첫 협업 이후 1만7000여 업체가 교육에 참여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올해 새롭게 제작된 동영상 2편에는 명태, 고등어, 낙지, 꽃게 등 수산물 20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29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방법을 다룬다. 또한 배달앱에서 실제 발생한 원산지 위반 사례를 품목별, 유형별로 상세히 소개해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교육 동영상은 2일부터 농관원, 수품원, 배민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농관원 홈페이지 알림마당 홍보자료 섹션, 수품원 홈페이지 기관소개 홍보관, 배민아카데미 영상교육 코너에서 접근 가능하다.

아울러 오는 5일 오후 2시에는 현장 단속 경험이 풍부한 농관원·수품원 담당자가 배민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원산지 교육을 실시한다. 이 자리에서는 원산지 표시 관련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농관원과 수품원은 “통신판매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업하며 원산지 표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온라인 교육에 입점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환경부, 생성형 AI 업무 도입 본격화

직원 100명 대상 체험단 한 달간 운영

환경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환경분야 업무 활용을 위해 직원 100명으로 구성된 ‘생성형 인공지능 체험단’을 2일부터 한 달간 운영한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9월 생성형 AI 도입에 앞서 업무 활용성과 보안성을 사전 진단하기 위해 이번 체험단을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체험단은 환경부 전체 직원 4388명 중 참여를 희망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본부 40명, 소속기관 60명으로 선발됐다.

체험단 구성원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보고서 및 발표 자료 작성 등의 실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업무 활용 사례와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을 정보화담당관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체험단은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입력 금지 등 내부 보안수칙을 준수하면서 개인 휴대기기를 통해 챗GPT 유료 버전을 업무에 활용하게 된다. 챗GPT는 오픈AI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으로 2022년 11월 처음 공개됐으며, 월 20~200달러의 다양한 유료버전을 제공하고 있다.

환경부는 체험단의 의견을 분석하고 보안 등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부처 맞춤형 생성형 AI 설계 및 운영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징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은 “이번 체험단 결과를 토대로 환경분야 업무에 최적화된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근로자휴양콘도 최대 50% 할인 받아요”

근로복지공단, 오늘부터 예약 접수

근로자와 택배·퀵서비스기사 등 노무제공자 누구나 올 여름 전국 43개 지역 유명 휴양콘도를 최대 50% 이상 할인 금액으로 예약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6월 2일부터 전국 43개 지역 유명 휴양콘도의 여름 성수기 이용 예약을 접수받겠다고 1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근로자와 택배·퀵서비스기사 등 노무제공자로, 별도의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6월 2일~23일까지이며, 선발 결과는 6월 26일 오후 4시 이후 발표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발제로 운영되는데, 월 평균소득과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배점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다자녀가정에게는 가점이 부

여되며, 신혼여행 목적으로 예약하면 최우선 선발된다.

선발된 근로자들은 한화, 소노(대명), 리솜, 켄싱턴 등 8개 회사가 운영하는 휴양콘도를 최대 50%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1박 기준 이용료는 6만 5000원부터 최대 29만 2000원이다.

예약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홈페이지의 복지/휴양콘도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여름 성수기(7월 18일~8월 23일) 외 기간에도 휴양콘도 이용이 가능하다. 평일에는 선착순으로 운영되며, 이용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업주(1인자영업자 포함)도 신청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